

광주 투자유치 다각화 나선다

광산업·첨단부품서 의료·웰빙·태양광사업 등으로 확대

태스크포스팀 구성...복유럽 시장 개척 등 투자 설명회

광주시는 올해 투자유치 중점 업종에 의료·웰빙·태양광을 추가하고, 대상지역도 복유럽까지 확대한다.

광주시는 21일 “해의 우수기업과 자본, 선진기술 유치 등을 위해 사전에 중점 투자기업을 발굴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인베스트 코리아·코트라·광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과 사전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3월 북미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4월 북유럽(스웨덴·노르웨이·독일·이탈리아), 7월 일본 등에서 잠재투자기업 발굴과 투자설명회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특히 투자유치분야 다변화를

위해 중점 유치분야인 광산업과 첨단 부품, 금형분야와 함께 의료와 건강·웰빙, 태양광에너지 등으로 확대하고 유치국도 미주와 일본 중심에서 북유럽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 전략·특화산업인 광산업과 LED, 금형산업 유치를 위해 3~4차례 국내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와 각종 국제 전시회 홍보관 운영 등 맞춤형 투자 상담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투자유치 기업과 기투자 기업 등은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각종 세제지원 등 행정서비스 강화로 증액투자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 산

업과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기 관 섭의 등 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난 연말 투자유치 업무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치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책임자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시는 또 투자기업에 과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한편 시는 민선 3기에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삼성전자와 엠코테크놀로지 등 국내외 기업 370여곳과 투자금액 1조9천억원, 1만5천여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효과 등을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하늘·바람·땅 에너지전 ‘업그레이드’

산자부 정책 전시회 선정... 4월 19일 DJ센터서 개최

국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광주시의 ‘하늘바람땅에너지전’이 올해 산업자원부 정책전시회로 선정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KDJ센터)는 21일 “2007하늘바람땅에너지전”이 산업자원부 정책전시회로 선정된데 이어 사업설명회에서도 호평이 쏟아지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KDJ센터에 따르면, 태양열·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이는 ‘2007 하늘바람땅에너지전’이 오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열린다.

이 전시회는 산업자원부의 정책전시회로 선정돼 6천만원의 국비지원 등을 받는다. 또 이 기간 동안 포스코, GS퓨얼셀 100여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참가해 열린 기술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07하늘바람땅에너지전 설명회’에는 산업자원부·전라남도·에너지관리공단·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유관기관은 물론 포스코·GS퓨얼셀·심모니에너지(주) 등 대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높은 참여도는 지난해 김대중컨벤션센터가 ‘2006하늘바람땅에너지전’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처음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13개국에서 66개사가 참가하고, 해외바이어만도 19개국에서 78명이, 수출상담액이 4천5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국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로 자리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차량 등록 무료대행 해줍니다”

신규·이전·변경 절차 서구형 서비스 시작

“차량등록 무료로 대신해줍니다.”

광주 서구청이 최근 교통과 민원실에 차량 등록 민원안내 코너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안내 도우미는 등록절차 등 전반적인 민원안내는 물론 각종 구

비서류의 검토 및 보완, 서류대서 등을 대행해 주고 차량 번호판을 떼고 붙이는 일도 돕는다.

구 관계자는 “대행서비스 실시로 차량 등록민원 접수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법규와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이날 현재 10만1천500여대에 달하며 구는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등록 등 차량등록에 관한 7개 업무와 관련, 하루 평균 1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저소득층 1,800명에 일자리

중증 질환자 등 간병 희망 도우미제 운영

광주시는 21일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희망 도우미제’와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23억 8천만원을 들여 차상위 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천800여명을 선발,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에게 가사나 간병 서비스를 하는 ‘희망 도우미’로

활용한다.

‘희망도우미’ 지망생들은 ‘호남 가사·간병센터’(514-3851)에서 치매와 중풍·장애인 등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희망 도우미’를 원하는 사람은 일선 자치구 사회복지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실업 해소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시행된다. 시는 올해 29억을 들여 1천300여명의 청년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떡·김치·민속주 등 전통식품산업 육성

광주시가 올해 떡과 김치·민속주 등 전통 식품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떡 산업을 위해 2009년까지 10억원을 들여 신상품과 떡 가공시설, 포장재, 디자인 등의 개발과 판로확대 지원 떡,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할 계획이다.

김치산업도 ‘감칠매기’ 브랜드 개발

과 소풍물 등 다양한 판로확대 등을 통해 2010년까지 100억원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발굴, 복원하는 등 전통주 산업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를위해 산·관·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전통산업 육성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가장 빨리 달려가는 안전지킴이 될 것”

배성근 신임 남부소방서장



“화재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대형 화재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배성근(53·사립) 신임 남부소방서장은 동농복합지역인 남구의 경우 비닐 하우스 같은 화재 취약 시설이 많고, 화재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인구가 많아 자칫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화재 예방에 앞

장서겠다는 복안이다.

배 서장은 이와 함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낡은 장비를 새 것으로 바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배 서장은 지난 1983년 소방간부후보생을 시작으로 광주 소방본부 지령실장·방호구조과장·광주시 서부·광산·북부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15억 들여 식품업소 개선

광주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으로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75개 업소로 ▲식품점업소 25곳 ▲화장실 개선 25곳 ▲모범업소 육성 등 16곳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 5곳 ▲식품제조 5곳 등이다. 희망 업체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와 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작성, 일선 구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 등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문의 광주시 보건위생과(613-3362)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울산공원 예정부지(왼쪽)와 조성계획도. 무등도서관 주변에 키 큰 향토 수종을 심어 웰빙숲을 만들고 산책로와 모임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울산공원, 도심속 웰빙 숲으로

광주시 북구 울산동 무등도서관 앞 ‘울산공원’이 문화와 교양·사색이 흐르는 도심속 푸른 공원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연내 무등도서관 앞 울산 공원 1만6천76㎡(5천평)에 큰나무 위주의 향토수종을 심어 웰빙 숲을 조성하는 등 도심속 푸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모두 73억원(공사비 25억원·보상비 48억원)을 들

소나무·이팝나무 심고 산책로 만들어

여 소나무·이팝나무 등 향토수종을 이 공원에 대거 식재한다.

시는 또 바다분수·팔각정자·산책로·지압보도 및 웰빙운동공간·모임마당·휴게마당·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다음달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

무리하고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2월께 완공한다는 목표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지친 시민들이 산책하며 사색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문화와 교양·사색이 흐르는 웰빙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

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5년 민주회중각 공원(옛 경찰청 차고지)·화정공원(옛 국정원) 등을 조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금남공원(옛 한국은행)을 만들어 도심속 푸른 5대공원 중 3곳을 완공했다. 광주시는 올해 울산공원 외에 상록공원(옛 도시사공관) 조성도 끝마쳐 5대 푸른공원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2007 동물아카데미

호기심 가득한 눈이 모이는 곳!

호기심 가득한 손을 기다리는 곳!

- 2007 동물아카데미

4학년은 학교 생활이 끝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입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과 호기심 가득한 손을 기다리는 동물아카데미입니다.

1. 동물아카데미란?

2. 동물아카데미의 목적

3. 동물아카데미의 대상

4. 동물아카데미의 내용

5.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방법

6.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기간

7.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장소

8.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방법

9.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방법

10.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방법

1. 동물아카데미란?

2. 동물아카데미의 목적

3. 동물아카데미의 대상

4. 동물아카데미의 내용

5.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방법

6.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기간

7.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장소

8.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방법

9.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방법

10. 동물아카데미의 신청 방법

문의: 동물아카데미 담당자 (061-260-1234)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문1동 1-1